

김영록 “투명·공정·정당성 훼손 ‘깜깜이 경선’ 개선해야”

권리당원 투표·득표 시인 조사 결과 등 민주당에 경선 관련 세부정보 공개 촉구
 “2천308개 오류 ‘설계 부주의’ 이해안돼”
 설계 부주의 원인·영향 등도 조사 요구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 변함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 정지)는 16일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깜깜이 경선’은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깜깜이 경선’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투명성·공정성·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경선 관련 정보 공개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모처에서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법적인 대응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명하지 못하고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경선 방식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경선 시인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남이라고 밝히면 전화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2천308개의 사례를 확인했다”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계 부주의라고 해명했지만 중대한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선을 중단할 수 없었고, 이기고 있었다고 판단해 그대로 수용하고 경선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시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제대로 조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이나 설계 방식, 조사 대상 등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불투명한 경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인데도 카톡이나 문자,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전화를 걸어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한 경우도 있다”며 “권리당원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으로 당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김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자 수조차도 공개가 안돼 모든 것이 ‘깜깜이’ 선거”라

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투명성·공정성·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고령자의 참정권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남의 경우 고령자들의 투표 자체가 너무 어렵다”며 “사실상 고령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 5% 이상 손실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예비후보는 “공당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인 민주당이 매우 중요한 통합특별시 경선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본경선이 끝나고 결선투표 직전 일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사·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는 데도, 당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어떤 방법이나 지침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참관인이 있다고 해도 ARS로 진행되는 조사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는 방법이 없다”며 “2천308개의 오류도 지지자들의 제보가 있어 드러난 것이다. 당 선관위원장에게 전화했지만 자신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을 시스템과 실무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의 경우 광주·전남의 권리당원 투표 수, 득표 수, 시인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기관별 통계 수치, 2천308명을 추가 조사하게 한 설계 부주의의 원인·영향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입장에서) 0.9%만 더 얻으면 이것을 선거였다. 박빙의 경선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지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경선 결과를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김지사, 오늘 업무복귀...전남광주 미래 기틀 마련 전념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증 정세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준비 및 기업 투자유치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17일 도지사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 동안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 달여만에 복귀하게 됐다.

김 지사는 17일 도정에 복귀해 6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중증 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현상 속으로 들어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민생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행정통합을 앞둔 전남·광주가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정선 교육감 예비후보, 민형배에 ‘교육 협치’ 제안

궐측 “논의 안해...선거 국면 부적절”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가 1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게 교육 협치를 공개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형배 특별시장 후보와 ‘전남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철학에서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 후보와의 협치 선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진> 이어 3대 협치 과제로 ▲마을자치와 교육 공동체 결합 ▲AI 산업도시와 미래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완성 ▲무한책임 돌봄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남광주교육 시장 상생통합 실무위원회 구성 ▲분기별 전남광주교육 시장타운홀 미팅 정례화 ▲시장 당



선자와의 주기적인 전남광주 교육상생회의를 내놔다.

이 예비후보는 “민형배 후보와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의 교육 표준이자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 측은 “이 후보 측과 교육 협치와 관련해 논의한 일이 없다”며 “선거 국면에서 마치 민 후보가 이 후보와 기자회견을 함께 하거나 정책 연대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순욱기자

김총리 “추가 점검 통해 지원·보완사항 살필 것”

‘2026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
 관람객 편의·안전 확보 철저 준비 당부

전남도와 여수시, (재)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16일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2026여수세계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정부 차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필요성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9월5일 개최되는 박람회 개막을 142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

로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점검에서 개도 부행사장의 섬 어촌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교통·편의시설 구축 상황 등을 집중 확인하고 관람객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현재 섬박람회 행사장 조성 공사 공정률은 78%, 랜드마크 45%, 열린문화공간 53%, 전시관 조성 33% 등 모든 시설 공정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주제섬과 8개 전시관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9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되는 등 국제행사로서 위상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손님맞이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와 청결관리,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형 친절·질서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선거와 단체장 부재 등 행정적 변화 속에서도 공백 없는 준비를 위해 관련 대행들이 실무를 직접 챙겨달라”며 “정부도 다음 주 추가 점검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보완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 1 자전거는 한 줄로!
- 2 우회전 차량에 주의!
- 3 횡단보도는 두 발로!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1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2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